

## COVID-19 상황에서 재택근무자들의 가족생활 경험 연구\*

조은숙\*\* · 김다애\*\*\*

---

### ■ 국문초록 ■

---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작된 재택근무가 당사자 및 가족원의 일상생활과 가족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재택근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재택근무로 전환된 기혼 성인 연구참여자 7명(남4명, 여3명)을 눈덩이표집법으로 모집하여 온라인 화상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내용은 전사되었으며 주제분석법(Braun & Clarke, 2006)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재택근무자의 가족생활경험은 5개의 주제, '융통성 있는 시간 사용과 시간 여유', '가사노동/자녀돌봄의 증가와 적응', '자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한 정서적 만족', '부부간 다툼도 대화도 많아짐', '가족원의 일상적 면모를 새로 알게 됨'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출퇴근 압박 없는 여유로운 삶, 일과 자녀돌봄의 병행이 가능한 점, 자녀와 함께 있을 시간이 늘어난 점,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가족원들이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등이 가족관계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경험하며 재택근무에 전반적 만족감을 표하였다. 그러나 형편상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에 틈틈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참여자들은 남편을 막론하고 재택근무의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부부간의 사소한 갈등이 이전보다 늘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재택근무가 '일-가족 간 갈등'의 좋은 대안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공평한 배분과 건강한 의사소통 등의 가족문화개선이 전제 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COVID-19, 재택근무, 가족생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내용분석

---

---

\* 이 논문은 2021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으며, 한국가족학회 2021 춘계 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이다.

\*\* 조은숙(주저자):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다양한 가족의 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상담적 개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Email: grace123@smu.ac.kr

\*\*\* 김다애(공동저자): 김다애는 상명대학교 가족복지과 박사과정중이며, 부부 및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상담적 개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Email: de326@naver.com

## I. 서론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면서 일과 가족생활의 다양한 부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교 등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파급되었으며, 이는 가정이 일터와 학교와 분리되어 ‘피난처’(Larsh, 1986)로서의 역할을 하던 근대적 가족생활 형태에 급격한 충격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변화의 시기에 나타나는 가족생활의 변화 양상에 관심을 가지며, 구체적으로는 재택근무 전환으로 유발되는 가족생활의 변화를 재택근무자의 시점에서 질적인 방법을 통해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직장근무 형태의 급격한 증가를 유발하였다. 직업이 있는 서울 시민 중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경험한 비율은 32.6%(서울시, 2021)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전년대비 3.4% 상승한 14.2%(통계청, 2020)로 재택근무에 대한 경험이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재택근무를 정상적 근무 형태로 인정하는 시발점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재택근무 상황은 자녀들의 온라인 학교학습과 병행되어 일어나게 되면서 가족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온 가족이 함께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는 자녀들이 온라인 학교 상황으로 종일 집에 있으며 추가적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택근무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상황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보다 다양한 직종,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보편화된 상황은 재택근무가 가족생활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재택근무는 일과 가족 간의 시간적·공간적인 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특히 자녀양육기에 있는 여성들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일환으로도 인식되어왔다(김영미, 2020; 홍승아, 2012). 하지만, ‘가사와 돌봄의 젠더화’라는 기존의 틀 속에서 여성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를 통해 더 많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하게 되며(Lyttelton et al., 2020; Noonan & Glass, 2012), 직업역할과 가족역할 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계모호성의 문제가 여성들에게 보다 집중된다는 점 등에서 성별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김영미, 2020; 이유허·이현주, 2021; 홍승아, 2012; Noonan & Glass, 2012). 그러나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남녀를 막론하고 높게 보고되어 왔는데 고용노동부(2020)의

최근 조사에서는 재택근무를 경험한 근로자의 91.3%가 '만족하다'라는 응답을 한 바 있다. 재택근무 안에 성별불평등이 유지 확대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에 대한 여성들의 만족 또한 높다는 것은 재택근무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다른 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은 일과 가족의 분리, 그리고 일로 인해 개인과 가족적 삶을 희생해야 하는 근대적 삶에 대한 회의, 즉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가치관과 맞닿아 있다(강민정 외, 2019; 안주엽, 2017). 가족의 도구적 기능보다 관계적 기능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가족다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해소해주는 대안이 재택근무이기도 하다. 재택근무는 재택근로자들이 그 일원인 가족들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 예상된다. 삶의 전쟁터로 여겨지는 '일터'가 '휴식과 재충전의 장'이라는 근대적 가정 개념과 융합되면서, 시간적·공간적으로 갈등관계를 빚었던 직업적 일과 가족역할 간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들의 일상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달라진 가족의 삶은 다시 재택근무의 편리함과 효율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젠더화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여성재택근무자의 유급노동과 충돌하면서 나머지 가족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적응과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재택근무가 가족 관계를 포함한 가족생활 전반에 가져오는 변화를 재택근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며(김송이, 2020; 장은하·김희, 2020; 진미정 외, 2020) 그 어려움의 중심에는 가사와 돌봄역할의 증가, 이로 인해 박탈된 여성의 여가 시간과 공간, 경제적 어려움까지 추가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부갈등 등이 자리하고 있다(김영란, 2020; 김유식·정병철, 2020; 진미정 외, 2020; 조은숙·김다애, 2021). 그러나 남편의 가사분담(김지현·최영준, 2021)이나 가족탄력성(손서희 외, 2021)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족생활만족이나 심리적 복지감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부부갈등이 부모의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달리 자녀돌봄 부담 증가나 자녀와의 관계 악화가 부모의 스트레스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진미정 외, 2020)가 나오기도 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가사노동이나 자녀돌봄노동의 증가가 스트레스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매개 혹은 조절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다

정교한 양적 연구와 가족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질적인 방법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작된 재택근무가 당사자 및 가족원의 일상생활과 가족관계에 가져온 변화를 재택근무 당사자인 기혼남녀 참여자들 대한 심층면접 방법을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 재택근무 이후의 시간사용, 가사와 돌봄노동, 여가활동 등 일상생활의 변화는 어떠한가? 2) 이러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코로나19와 가족생활의 변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가족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집합적 모임이 제한되면서 학교는 온라인 학교로, 직장은 재택근무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족과의 여가활동이나 가족식사시간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데(김경미 외, 2012; 천혜정, 2004)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가족에게 강제된 시공간의 공유는 그와 달리 양면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하의 가족관계 연구(김영란, 2020; Lee et al., 2020; Save the Children, 2020)에서는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가족관계가 친밀해지는 효과가 있는 가족들도 있고 그 반대로 스트레스가 높아진 가족도 있음을 보고한다. 가족 상호작용의 증가는 유대가 강했던 가족들에게는 가족관계의 강화로 이어졌을 수 있고 어떤 가족들에게는 기존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것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진미정 외, 2020; 최청락 외, 2020). 즉, 가족원의 공유시간 증가가 가족들에게 유발하는 효과는 부익부 빈익빈의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의 바탕 하에 김지현과 최영준(2021)은 코로나19 이후 가족들의 공유시간 증가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코로나 이전부터 남성의 가사분담이 있었던 가정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조절효과를 발견하였다. 즉, 남성의 가사분담이라는 가족문화를 가진 경우 공유시간의 증가가 성인남녀의 가족관계 만족으로 보다 확실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일 때 가족끼리

보내야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결정하는 가족문화가 공유시간이 가져오는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온 가족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집은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온라인 학교학습으로 인한 자녀 공부 뒷바라지 역할이 더해지면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졌다(김유식·정병철, 2020; 조은숙·김다애, 2021; 진미정 외, 2020). 특히 취업여성의 경우 이러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부담과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대안을 찾지 못하여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다(김영미, 2020). 이러한 여성들의 부담과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있어서의 가정 내 남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가족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김영란, 2020; 이유경·이현주, 2021). 이러한 성별 불평등 상황은 코로나 상황에서 여성의 개인 여가시간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되게 남성의 여가시간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에서 보다 분명히 관찰된다(진미정 외, 2020). 이러한 배경 하에서 코로나 상황에서의 여성의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남성보다 더 높으며(김송이, 2020; 김영란, 2020) 가족관계 만족도는 더 낮은 결과(김지현·최영준, 2021)가 나타나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는 가계경제의 악화로 이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가계경제의 악화는 가족의 물질 기반의 불안정성과 관련되므로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족원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지현·최영준, 2021; 손서희 외, 2021). 그러나 가족의 건강한 의사소통, 고난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 등의 가족탄력성은 가계경제 악화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손서희 외, 2021). 이는 사회적 재난시기 가족관계 만족도는 재난 이전에 만들어진 가족의 건강성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연구결과이다.

이상의 연구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코로나 상황에서 가족은 가족에게 부과되는 너무 많은 역할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그 어려움이 가사와 돌봄역할의 여성화 경향과 맞물려 기혼여성에게 보다 더 부과되는 현실이 있다. 둘째, 가족 내 적절하고 공평한 역할배분, 건강한 가족문화 등이 기반이 될 경우 가족원의 길어진 공유시간은 가족의 친밀과 유대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하의 가족생활이 재택근무와 맞물릴 때 어떤 가족생활이 펼쳐지게 될지가 본 연구의 관심사이다.

## 2. 재택근무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2018년 발표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재택근무에 대한 비중은 낮은 편이었고 그 도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강민정 외, 2019). 재택근무는 자녀양육기의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며 어린자녀를 둔 여성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선호되었다(이애련, 2011; 홍승아, 2012). 이로 인해 특히 미취학연령의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우 급여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다(Lyttelton 외, 2020). 남성들도 일과 가족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증가로 재택근무에 대한 요구가 커져왔으나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도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2020)의 조사결과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던 48.8%의 업체가 재택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0.8%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가 재택근무로의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재택근무는 가사와 돌봄노동 등 가족역할과 직업역할 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가족 안에 돌봄요구가 많을 경우 재택근무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어린자녀나 노부모 돌봄 의무가 있는 재택근무자들은 재택근무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고용노동부, 2020; 사용진·박소영, 2017). 하지만, 어린자녀나 노인들에 대한 돌봄지원 프로그램이 만족스럽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재택근무 이용만족도는 상승한다(사용진·박소영, 2017). 가족 내 가사와 돌봄노동이 재택근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가사와 돌봄노동의 절대량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이유경·이현주, 2021). 미국 재택근무자의 2003년~2018년 사이의 생활시간 자료를 분석한 Lyttelton 외(2020)는 재택근무를 하는 남녀의 일과시간을 비교해본 결과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가사노동에 소요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확인하여 여성 재택근무자들의 역할 과중문제와 성별 불공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김영미, 2020; 홍승아, 2012; Noonan & Glass, 2012)를 재확인해주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재택근무가 가사나 돌봄노동에 있어서 남성들의 참여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Lyttelton 외(2020)는 2003년 이래 15년 간의 시간 자료에 기초할 때 재택근무가 가사노동 시간에서의 남녀차이는 줄이지 못하지만 자녀돌봄 시

간에서의 남녀차이를 줄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남성 가내노동이 한층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코로나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아빠들이 이전보다 육아(Carlson et al., 2020; Holmes et al., 2020) 뿐 아니라, 집안일에도 더 많이 참여한다(Carlson et al., 2020; Mangiavacchi et al., 2021; Shafer et al., 2020)는 연구결과가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의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재택근무가,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재택근무가 가족 내 남녀의 역할 조정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성희(2021)의 연구에서는 ‘엄마가 일할 동안은 책상에 깃발을 세워둔다’라거나 하여 자녀가 일하는 엄마에게 적응해나가는 모습 등이 포착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남성의 재택근무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분담이라는 변화를 보다 일으키기 쉽게 만들며, 여성의 재택근무는 ‘일하는 아내/엄마’의 모습을 가족원들이 인식하는 적응을 유발하는 등 재택근무가 가져올 수 있는 가족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으나, 재택근무가 가족원의 시간사용과 역할을 어떻게 재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국인 대상의 연구는 더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택근무의 확산은 지금까지의 집의 개념을 변경시키고 있다.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인 집에 일이라는 영역이 들어오게 되며 가족의 삶과 직업으로서의 일이 혼재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일과 가족 영역의 융합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감지되고 있다. 이유경과 이현주(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아내들의 경험을 부부갈등에 초점을 두어 조명하였는데 아내들은 남편의 재택근무를 ‘자신의 시간과 공간이 침범당하는 느낌’과 독박육아와 가사의 지속으로 ‘가중된 부담감’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가족 간의 공간통합이 여성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침범’과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반면 일을 하는 시공간이 가족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통해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얻을 수 있어 만족스러움을 느낀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김성희(2021)의 연구에서도 대부분 여성인 재택근무자들의 경험이 포착되었는데, 이들은 전반적으로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며 가족들이 재택근무하는 ‘엄마’에게 적응해나가는 모습을 보고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 이루어진 홍승아(2012)의 질적연구에서도 남성들이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통해 얻은 시간적·정신적 여유로 가족관계에 변화가 나타나 배우자·자녀와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관계의 질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는 일과 가족생활의 병행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현대인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는 근무형태임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여성 재택근무자들 안에서도 가사분담이나 가사조력자 유무, 직군이나 직급 등 여성 근로자의 계층적 차이와 관련하여 가족생활 경험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재택근무는 근로자의 시간활용이나 여가활동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고용노동부(2020)의 연구결과 재택근무자들은 융통성 있는 시간사용이나 출퇴근시간의 절약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이들의 여가시간을 늘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러한 시간적 여유나 여가시간의 증가가 가족관계와 어떠한 인과적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재택근무가 가족들의 시간구조와 공간사용의 변화를 유발하여 가족의 일상과 가족관계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참여자 모집을 위해 코로나19 발발(2020년 2월) 이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기혼남녀를 2020년 4월 초부터 눈덩이표집법을 활용하여 가까운 주변인에서부터 모집해나갔다. 다양한 재택근무의 경험을 청취하고자 하였기에 특정 성별이나 가족생활주기 및 가족형태를 제한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 모집되었으며 여기에는 부부취업인 경우가 4명, 남편만 취업한 경우가 2명, 남성 한부모 취업자가 1명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35~48세, 자녀의 연령은 2~16세까지 분포했으며 무자녀가족이 1명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전일제 취업자로서 직종은 사무직과 IT업종, 금융업, 사회복지사 등이었다. 3명은 순환재택, 4명은 매일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면접 당시 재택근무 기간은 3주~12주였다. 부부 모두 재택근무인 경우가 2명,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가 2명이어서 재택근무로 인해 하루 종일 부부가 한 공간에 있게 되는 경우는 4명이었다. 재택근무의 환경은 거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3명, 별도의 방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2명, 안방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2명이었다. 돌봄프로그램 이용여부에 있어서는 이용하는 경우가 2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



실과 어린이집 긴급돌봄을 사용 중이었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4명, 해당없는 경우가 1명이었다. 자녀 돌봄·학습 시간은 1시간부터 6시간까지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돌봄 및 학습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CSI-4(Funk & Rogge, 2007)로 측정한 부부관계 점수는 11~20점까지로, SPIC-RWC(Pinsol et al., 2015)로 측정한 부모자녀관계 점수는 3.33~4.17로 나타나 참여자들의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가 다른 한국인들에 비해 특별히 더 양호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상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구참여자 모집 시부터 연구내용과 자료 활용의 범위, 자발성에 기초한 참여, 연구참여로 인한 피해, 비밀보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A	B	C	D	E	F	G
성별	남성	남성	남성	남성	여성	여성	여성
연령	36세	37세	38세	45세	35세	37세	48세
직업	서버개발자	금융업	사무직	IT개발자	사무직	사회복지사	사무직
배우자 직업 (재택여부)	전업주부	전업주부	N/A (배우자 없음)	간호사	연구원	공공기관 부장 (재택)	사무직 (재택)
교육수준	대졸	대졸	대졸	대학원졸	대학원졸	대학원졸	대학원졸
월평균 소득	401-500 만원	601-700 만원	201-300 만원	701만원 이상	701만원 이상	701만원 이상	701만원 이상
결혼연수	3년 10개월	6년 10개월	17년 2개월	19년 9개월	6년 7개월	9년 5개월	19년 4개월
동거 가족원	아내(38)	아내(35) 자녀 (딸, 3, 딸, 3, 아들, 1)	자녀 (아들, 16, 14, 9)	아내(45) 자녀 (딸, 17, 아들, 13)	친정어머니 (60)* 남편(37) 자녀 (아들, 2)	남편(41) 자녀 (딸, 8, 아들, 6)	남편(48) 자녀 (딸, 18 아들, 16)
재택근무 유형	순환재택	매일재택	매일재택	매일재택	매일재택	순환재택	순환재택
재택근무기간	7주차	8주차	9주차	12주차	8주차	5주차	3주차
재택근무 환경	별도의 방에서 근무	별도의 방에서 근무	거실에서 근무	거실에서 근무	안방에서 근무	거실에서 근무	안방에서 근무

	A	B	C	D	E	F	G
돌봄 프로그램 이용여부	N/A (해당없음)	이용하지 않음	이용함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하지 않음	이용하지 않음	이용함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집 긴급돌봄)	이용하지 않음
자녀 돌봄· 학습 시간	N/A (해당없음)	4시간	6시간	3시간	3시간	6시간	1시간
부부관계 <sup>†</sup>	11	16	-	17	17	20	12
부모자녀관계 <sup>‡</sup>	-	3.67	3.83	4.17	3.33	3.67	3.50

\* 친정어머니는 자녀돌봄으로 평일만 같이 생활함

† Couple Satisfaction Index(CSI-4:Funk & Rogge, 2007)로 측정. 미국 임상집단 기준은 13.5 이하.

‡ Systemic Therapy Inventory of Change\_Relationship with Children(STIC\_RWC:Pinsof et al., 2015)로 측정. 미국 임상집단기준은 3.94 이하

##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사람들의 인식과 경험, 의미를 찾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인 심층면접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은 가족상담 전문가로서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주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공동연구자는 보조진행자로 동석하였다. 면접 종료 직후 연구자 회의를 통해 면접 자료 요약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때의 정리된 내용은 이후 분석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면접은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3~5가지 질문(재택근무 이후 여가, 생활시간, 가사나 돌봄 등 가족생활 전반의 변화/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전반적인 재택근무의 장단점 등)을 기초로 추가 질문이 더해지며 전개되었으며 1인당 1~1.5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자의 배우자가 동의할 경우 참여자 배우자와의 추가적인 면접을 15분 정도 진행하여 참여자 면접내용의 분석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3명의 배우자가 이렇게 추가면접에 참여하였다. 면접 전 간단한 척도(Funk & Rogge, 2007; Pinsof et al., 2015)로 측정된 참여자들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점수는 질적 자료 해석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면접은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활용한 화상면접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과정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화되었다. 온라인 면접은 전통적인 대면 면접에 비해 피면접자와의 라포형성에서 불리하지 않음이 확인된

바 있고(Dustan & Tooth, 2012; Holmes & Foster, 2012) 본 연구를 위한 연구자들의 온라인 면접경험 또한 그러하였다. 오히려 화상면접이 표정 등 비언어적 메시지까지 정면으로 볼 수 있고 녹화하기가 쉬워 이후 자료분석 시 녹화물을 보면서 맥락을 이해해 나가는 데 용이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피면접자가 가정에서 화상으로 접속하였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면접 직후에 가정 내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로 면접하여 자료를 보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피면접자가 온라인 기기 작동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나 통신오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였던 터라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면접내용은 모두 축어록으로 작성되었으며 Braun과 Clarke(2006)이 제시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6단계의 과정을 따라 분석되고 정리되었다. 먼저 녹취록 읽기와 녹화영상 시청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연구자들이 자료에 친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녹취록을 읽으며 주요 개념으로 두드러지는 진술 부분을 체크하며 첫 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셋째, 표시된 코드들을 확인하며 코드를 포괄하는 주제를 세부주제로부터 상위 주제로까지 만들어갔다. 넷째, 확인된 주제들을 보면서 전체와 부분 읽기 상에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다섯째, 주제들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주제들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문장들을 요약하여 원고를 작성하였다. 3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환류 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수정작업이 가해졌다.

분석은 2인의 연구자들에 의해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연구자는 가족학 분야에서 다수의 질적연구 논문을 출판한 바 있으며, 공동연구자는 질적연구에 대한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 연구방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연구자들은 개인의 편견이나 부주의로 인해 자료 분석에서의 중립성과 일관성(Lincoln & Guba, 1985)을 잃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먼저 연구자 스스로 선행연구를 통해 습득한 재택근무자 가족생활과 관련된 사전 지식의 틀로 자료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연구자 2인이 축어록의 일부를 함께 코딩함으로써 서로의 관점을 조율해나갔고, 이후 각자 코딩한 것을 대조하면서 주제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각자의 관점을 점검해 나갔다. 분석의 1차

산출물에 대하여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감수자를 초대하여 개방 코딩부터 시작된 분석의 전 과정을 감수 받은 후 감수자의 의견을 주제 분류 등의 재조정에 반영하였다. 또한,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분석의 사실적 가치(Lincoln & Guba, 1985)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에게 분석된 자료를 회람하여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받았다. 면접 자료 축어록 외에 참고자료로 면접 요약 노트, 배우자 면접 자료와 참가자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척도점수 등의 자료가 활용되어 자료의 삼각화를 꾀하였다.

#### IV.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택근무로 인한 가족생활 경험은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모두 다섯 가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각 주제와 세부주제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자들의 가족생활 경험 분석 결과

주제	세부주제
융통성 있는 시간 사용과 시간 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늦게 일어나도 되는 아침이 좋음(영유아기 자녀 가족)</li> <li>- 출퇴근 시간 절약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공동)</li> <li>- 근무시간의 자율적 사용이 도움이 됨(영유아기 자녀 가족)</li> <li>-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분이 사라져 애매함(청소년기 자녀+부부가족)</li> </ul>
가사노동/ 자녀돌봄의 증가와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노동의 증가(공동)</li> <li>- 재택근무 하는 남편이 가사를 많이 도우며 자녀들의 가사참여를 독려함(청소년기 자녀 가족)</li> <li>- 집안일 처리나 자녀 학습조력이 수월해짐(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가족)</li> <li>- 육아에 여유가 생김(영유아기 자녀 가족)</li> <li>- 가사와 자녀돌봄 때문에 재택근무가 불편함(영유아기 자녀 가족)</li> </ul>
자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한 정서적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집에 있어 자녀들이 좋아함(영유아 + 초등저학년 자녀 가족)</li> <li>- 공유시간 증가로 자녀와의 대화 및 친밀도 증가(공동)</li> <li>- 부모로서의 자기정체감을 새삼 확인함(영유아기 자녀 가족)</li> <li>- 자녀와 여가활동을 함께 함(학령기 자녀 가족)</li> <li>- 각자의 시간을 즐김(청소년 자녀 가족)</li> </ul>

주제	세부주제
부부간 다툼도 대화도 많아짐	-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으니 편리함(공동) - 부부간 사소한 다툼 증가(남성 참여자) - 부부간 대화와 공유활동 증가 (남성 참여자)
가족원의 일상적 면모를 새로 알게 됨	- 가족들이 나의 일하는 모습을 봄(공동) - 배우자의 일상을 보며 새로운 모습 발견(공동) - 아내의 육아고충을 이해하게 됨(영유아기 자녀 가족) - 아이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새로 알게 됨(학령기 자녀 가족)

## 1. 융통성 있는 시간 사용과 시간 여유

### 1) 늦게 일어나도 되는 아침이 좋음

재택근무를 하면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생활상의 변화 중 하나는 출근 준비와 통근 시간의 절약으로 인해 수면시간이 늘고 기상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었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참여자(BEF)는 늦게 일어날 수 있게 되면서 가족원 전체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전에는 출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깽깽 따옴표 염려스럽고, 실제로 아이들이 일찍부터 깨게 되어 아침마다 가족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재택근무 이후 좀 더 잘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 아이들의 기상 시간에도 영향을 미쳐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아침마다 겪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다는 점에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B: 제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이제 여기 쌍둥이들하고 같이 자거든요. 저나 엄마나 한 사람이 전담해서 자니까 애들이 좀 더 안정감을 느껴서 그런지 늦게까지 원래 자던 대로 자는 거예요. 이제 막내도 그렇게 해서 깽 필요 없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컸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아마 그 점에서 되게 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참여자C: 일어나는 시간도 지금은, 사실은 눈뜨고 세수하고 앉으면 바로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음,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잠도 더 잘 수 있었고.

## 2) 출퇴근 시간 절약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

재택근무는 통근 시간의 절약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자녀 연령과는 관련 없이 모든 응답자들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 직후부터 바로 갖게 되는 여유시간은 가족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게 하였고 개인적 여유도 가지게 하였다.

참여자C: 재택근무를 하면서 제일 크게 좋았던 것은 저녁이 있는 삶을 제가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 먹고 설거지를 다 하고 나면 늦어도 뭐 아무리 늦어도 8시 정도 밖에 안되니까요. 그러면 뭐 동네, 한 시간 동안 동네 한 바퀴를 돌 수도 있고요.

참여자F: 재택을 하면은 출퇴근 거리 두 시간 이상 그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니까 뭐 본인만의 개인 시간을 즐길 수 있고.

## 3) 근무시간의 자율적 사용이 도움이 됨

재택근무는 자율적인 시간 사용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하여 그것이 업무와 가족 생활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어린 자녀의 주돌봄자 역할을 하는 응답자들(CEF)은 이러한 자율적 사용을 통해 자녀에게 자신이 필요할 때 보다 잘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일을 마치면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업무집중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참여자C: 제가 당장 지금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아이한테 좀 더 집중을 하고 나중에 그만큼, '저녁 늦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유만 해놓으면 회사에서 다 배려를 해주고 있어서.

참여자E: 9시에는 방에 들어와서 일하다가, 대신에 좀 어차피 회사 갈 때처럼, 원래 저희는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근데 어차피 집에서는 혼자 먹으니까 빨리하고 하니까 일을 그냥 좀 빨리 마쳐요.

#### 4)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분이 사라져 애매함

재택근무가 시간 사용에 있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면으로 정확한 시간 구분이 사라짐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전에는 출근하면 퇴근 시간에 맞춰 일하였으나 집에서는 퇴근시간의 경계가 없이 일을 지속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렇게 시간 사용에 실패하여 오히려 휴식시간은 줄고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는 자녀돌봄의 필요가 비교적 적어 일과시간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경우(ADG)에 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참여자A: 퇴근해야 하니까, 아 어떻게든 하다 '에이 안되겠다' 하고 가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집이다 보니까 잡고 어. '좀만 더 하면 끝날 거 같은데' 이제 더 잡고 일하게 되고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G: 재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쓰기가 오히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일이 많아서 뭐 밤 막 12시? 1시? 그냥 이렇게 앞으면 점심 먹고 앞으면 계속 일하고, 뭐 잠깐, 오히려 더 그런 것이 더 없어지는 그런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 2. 가사노동/자녀돌봄의 증가와 적응

### 1) 가사노동의 증가

재택근무로 인해 가사노동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친정어머니가 동거하며 가사를 돌보아주는 여성 참여자 E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에게서 나타났다. 특히 식사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언급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외식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사준비의 부담이 더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내가 간호사인 남성 참여자 C의 경우 아내 대신 아이들에게 '보다 제대로 된 식사'를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가사노동을 더 늘리기도 하였다. 전업주부를 아내로 둔 남성참여자(AB)의 경우에는 친정어머니에게 가사를 맡기는 여성참여자 E와는 달리 재택근무하는 자신의 점심식사까지 준비해야 하는 배우자의 어려움에 미안함을 표시하였다.

참여자B: 이제 제가 재택근무를 하니까 일주일 내내 24시간 계속 함께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제가 점심도 아내가 챙겨줘서 같이 먹

고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아내 입장에서는 좀 더 집안일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한부모 남성참여자 C의 경우 출근을 하느라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채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때문인지 재택근무 기간 동안 육체적 한계를 느끼면서까지 보상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참여자C: 뭐 일을 좀 찾아서 했어요. 뭐 이불 빨래 못 해주는 것들, 이불 빨래 제가 다 하고 베개 빨고. (중략) 보이죠. 신경 못 썼던 부분들이 너무 보여서 날 잡고 대청소를 한 번씩 하고 뭐 새벽까지 청소하다 보니까 밤새는 경우도 있었고.

## 2) 재택근무 하는 남편이 가사를 많이 도우며, 자녀들의 가사참여를 독려함

재택근무를 하는 남성 참여자들은 아내가 전업주부(AB)이건 직장인(D)이건 상관없이 대체로 가사분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참여자 중 함께 재택근무를 하는 남편이 있는 경우(FG)는 남편이 가사조력에 잘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가사분담은 심리적 부담감이 큰 식사 부분에서부터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조력체계가 이미 익숙하게 자리 잡은 것처럼 보였다.

참여자D: 제가 집에서 제 일만 하면은 가사노동을 하는 거가 뭐 아내 몫이 됐을 텐데 제가 또 그런 일 그 참여하는 거를 조정하는 걸 분담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근데 출근, 퇴근하기 전에 제가 뭐 하여튼 가능한 와서 안 하도록 제가 설거지나 이런 거를 해놓는 편이에요. 와서 쉬도록, 쉬도록 해주고 싶어서 그런 편이다.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경우(CDG) 자녀에게 간단한 가사를 가르쳐 가사분담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참여자들은 재택근무를 계기로 교육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가사에 대한 규칙이나 방법을 가르쳤다고 말하였다. 청소년기 자녀들의 간단한 가사노동 참여는 부모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C: 지금은 굳이 얘기 안 해도 큰 애가 먼저 설거지한다거나 큰 애가



설거지하는 동안은 둘째가 분리수거를 하고 오고 요렇게 좀 분담이 좀. 잘 됐어요. 정착이 잘 됐어요.

참여자G: 뭐 음식을 같이 만들지는 않는데 하거나, 하면은 차리고 치우고 같이 그다음에 어 간식 같은 거는 자기들이 뭐 이제 요새는 기계가 좋잖아요. 반조리 식품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는 자기들이 챙겨 먹기도 하고요.

### 3) 집안일 처리나 자녀 학습조력이 수월해짐

재택근무로 성인이 집에 있다는 것은 집안일 처리나 자녀의 온라인 학교학습 조력을 수월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이 어린 맞벌이 부부(EF) 경우에는 집안의 사소한 일처리를 위해서도 부부가 애써 시간을 맞췄다면 재택근무 이후에는 상주하고 있는 어른이 이를 간단히 맡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자녀가 어린 경우(B)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장을 본다거나 간단한 업무를 보는 것도 힘겨운 일인데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잠시 쉬는 시간에 아이돌봄을 담당하고 아내가 빨리 불일을 보고 올 수 있어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E: 가끔 수리하거나 이래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중략) 가급적이면 주말에 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남편도 늦게 출근하는 거 가능하니까, 아 그럼 내가 오늘은 늦게 출근할게 차 가지고 갈게 이러면서 늦게 남편이 가거나 했는데. 이제는 집에 제가 있으니까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 다 저의 소관인 거잖아요.

참여자B: 근데 제가 집에 있으니까 이제 제가 뭐 잠깐 점심시간에 제가 애들을 봐줄 수 있으니까 제가 애들을 잠깐이라도 봐주면 뭐 아내가 그 시간에 잠깐 나가서 장을 봐올 수도 있고.

초등학생 이상 연령의 자녀가 있는 재택근무자들(CDFG) 중에는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자녀들의 온라인 학교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을 만족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C: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이 온라인 개학을 다 했어요. 수업 같은 부분들 저희가 PC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세팅을

해줄 수 있었어요.

#### 4) 육아에 여유가 생김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참여자들(BEF)은 재택근무로 인해 육아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는 말을 하였다. 재택근무를 하는 남편이 육아를 조금씩 도우면서 육아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고 아이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줄 수 있게 된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유는 부모의 심적 여유와도 연결되어 자녀돌봄에 대한 스트레스가 일부 경감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자B: 제가 좀 더 이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내한테도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좀 놀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 제가 좀 더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고.

참여자F: 재택근무하니까 그런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더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좀 잠도 더 잘 수 있고 서로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교도 마찬가지고. 육아부담이 같이 줄어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중략)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놀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그리고 요즘 온라인 학습하니까 숙제도 봐줘야 하거든요. 숙제도 봐줄 여유가 생기고 그런 게 좋은 거 같아요. 아무래도. (중략). 그래도 시간이 늘어나니까 더 많이 안 아주게 되는 것 같고 조금 저도 막 힘들면 사실 좀 짜증 날 때도 있고 한데,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화도 좀 많이 안 내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좀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 5) 가사와 자녀돌봄 때문에 재택근무가 불편함

일과 병행하여 가사와 자녀돌봄이 가능한 상황은 역으로 재택근무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남녀 참여자 모두에게서 가사나 돌봄역할이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주로 자녀의 주 애착 대상이 되는 영유아기 자녀의 엄마 참여자들(EF)은 어린 자녀의 존재가 일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근무시간에 돌봄시설에 가있던 자녀가 돌아오거나 하게 되면 일과 돌봄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참여자E: 사실 일을 할 때도 예전보다 좀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적응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고. (중략)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전 그냥 똑같거나 아니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힘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중략) 전체적인 일을 하는 일에 대한 것이나 육아에 대한 것이나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으면 힘들어졌지 더 편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참여자F: 재택근무를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 이집이나 학교 긴급돌봄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아이가 아플 때는 같이 데리고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데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조금 어렵긴 했어요. 아이들 하교시간이 근무시간에 조금 중복이 되기도 하고. 네. 와서 아무래도 옆에서 계속 말도 시키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효율 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한 여성 참여자는 자신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육아를 도와줄 남편의 귀가를 재촉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참여자E: 저도 이제 어쨌든 저녁시간에는 좀 같이 육아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중략)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일찍 오기를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사실 남편도 좀 유연한 근무가 되긴 되는 직장 이거든요. (중략) 그래서 제가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는 ‘아, 오늘은 집에 일찍 와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면.

가사와 육아로 인한 고충이 재택근무에 부담이 되는 것은 남성참여자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간호사로 출근하는 남성참여자(D), 한부모인 남성참여자(C) 등은 본인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녀들의 식사까지 챙겨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토로한다. 이와 같이 가사와 돌봄노동은 재택근무를 하는 남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D: 저도 처음에는 아침, 점심을 제가 막 그전에 그 다음날 아침에 뭘 해줄까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요리도 하고. 그래서 아침을 멋지게 만들어주고 점심도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한 일주일, 이주일하다보니 이게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안되겠더라고요.

### 3. 자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한 정서적 만족

#### 1) 부모가 집에 있어 자녀들이 좋아함

영유아기 자녀들은 일하는 부모, 특히 엄마(EF)가 집에 있는 상황을 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적 여유를 빈번하게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부모 가정의 남성재택근무자(C)의 경우에도 유일한 양육자인 아빠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십 대인 자녀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DG)에서는 부모가 재택근무를 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자E: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제가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더 어린이 집 가기 싫어하고 그런 것 있긴 했는데. 그래도 아기가 들어오면서 ‘어 엄마 있어?’ 이렇게 항상 할머니한테 얘기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이는 그래도 집에 가면 엄마가 있다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중략) 아 내가 그래도 같이 놀아주지는 않아도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되게 좋아하는 거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여자F: 그냥 사실 재택근무랑 휴가랑 차이가 있긴 할 텐데, 일단 아이들은 제가 있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엄청 좋아하고 신나해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것 보다는 엄마가 있으니까 까르르 거리면서 집에 오고.

#### 2) 공유시간 증가로 자녀와의 대화 및 친밀도 증가

부모인 재택근무자들(A를 제외한 전원)은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재택근무로 인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여 좋았다고 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맞게 된 재택근무지만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감사할 정도로 좋았다’, ‘기회였던 것 같다’, ‘축복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표현되었다. 부모의 재택근무는 자녀와의 대화가 많아지고 친밀감이 커지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참여자들(BCD)에게서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참여자C: 그리고 예전에도 대화는 많았지만 지금도 계속 같이 있으니까 수시로 아이들의 대화를 먼저 걸어와서 지금 이제 답을 해주고. (중략)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도 많아져서 조금 더 친밀해진 것 같아요.

참여자G: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온전히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 나쁠 것 같은데 저는 좋더라고요. (중략). 지금은 제방에 와가지고 제 침대 와서 저 일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뒹굴거리기도 하고 말도 시키고 그래요. 애도 오히려 여유가 있잖아요. 갑갑함도 있지만 여유에서 조금 순화되었다고 하나? 부드러운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 3) 부모로서의 자기정체감을 새삼 확인함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BEF)의 경우 재택근무를 통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해 새삼 깨닫는 시간이라고 말하였다. 참여자 중 일부는 부모로서의 성장 경험을 이야기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이 부모의 책임감과 양육 역할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참여자B: 제가 세 아이의 아빠라는 거를 사실 크게 실감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지금도 육아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닥치니까 하는 거지 내가 진짜 세 아이의 아빠 그 정도로 성장이 했는지 실감은 안 나는데. 근데 쌍둥이들이 아빠, 아빠하고 매달리고 할 때 보면은 좀 더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나 뭐 어떤 그런 거를 좀 더 느끼죠. 점점 더 느끼는 거 같아요. 가장으로서 그런 책임감도 느끼고요.

참여자E: 지금 이렇게 내가 뭘 해주지 않아도 나의 존재만으로도 아이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이한테는 엄마가 진짜 중요하고, 내가 잘하는 엄마가 아닌데도 나를 엄마라는 자체만으로 좋아해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저도 그래도 전업주부가 느낄 수 있는 것을 요즘에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재발견? 그러니까 나도 엄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중략) 나도 엄마였고. 사실 진짜 잘하지 못하는 엄마인데도, 할머니가 훨씬 잘해주는데도 그래도 애들한테 엄마가 최고구나 그걸 느끼면서.

#### 4) 자녀와 여가활동을 함께 함

참여자들은 재택근무로 생긴 여유시간을 자녀와의 여가활동에 활용하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있었다. 자녀가 초등고학년이나 청소년일 경우 자녀들과 함께 산책이나 보드게임 같은 상호교류가 가능한 활동(CDG)을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가 유아기 혹은 초등저학년(F)이면 요리, 고무줄놀이, 장난감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가족들에게 단순히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서를 공유하는 경험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D: 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저녁 먹고 항상 한 시간씩 애들을 데리고 항상 이 주변에 산책을 항상 했어요. 그러면서 뭐 하루 종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시간이 그전에 비해 많았죠.

참여자F: 보드게임도 더 많이 샀고 뭐 고무줄 팔찌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퍼즐도 사고 좀 장난감이 더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즉흥 놀이 장난감으로 해가지고 전보다는 아무래도.

#### 5) 각자의 시간을 즐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DG)은 자녀들과 여가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개인시간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지 선택권을 주어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나타났다.

참여자D: 아홉시 쯤에는 산책을 나가는데 항상 애들한테 같이 갈 사람 항상 물어보죠. 그러면은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가겠단. 어떤 애들은 뭐 낮에 많이 돌아다녀서 안된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뭐 같이 나갈 때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참여자G: 저는 (아이들과의 산책을) 같이 가도 상관없는데 자기(남편)는 저녁에는 티비 드라마를 봐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터치하지 말라고.

#### 4. 부부간 다툼도 대화도 많아짐

##### 1)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으니 편안함

재택근무로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게 된 경우(ABFG)는 참여자들에게 부부친밀감이 나 애정과 연결되기보다는 편안함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집안일이나 아이돌보기 등에 이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함께 사는 공간에서 일을 같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편하고 좋다고 말한다. 이런 경향은 가족생활주기와의 별 관련이 없어 보였다.

참여자F: 어 집에서 둘 다 있으니까 아이 돌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컴퓨터 따로따로 쓰긴 했는데 뭐 나쁘진 않았습시다. 같이 하는 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 2) 부부간 사소한 다툼 증가

재택근무로 부부가 한 공간에 하루 종일 있게 되면서 이것이 때로는 부부관계에 긴장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사소한 다툼의 증가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부부 다툼의 증가에 대한 응답은 남성참여자(AB)에게서만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참여자A: 아무래도 계속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씩 와이프가 이야길 하게 되고 저도 이제 평소에 한번 들을 거 너무 그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해가지고 한번 말다툼이 좀 있었거든요.

참여자B: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만큼 오해의 소지도 많고 좀 이제 약간 말다툼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 3) 부부간 대화와 공유활동 증가

반대로 부부에게 생기는 시간적 여유는 관계에도 여유를 주었다. 급하지 않아 천천히 대화해나갈 수 있고(B), 자녀가 없는 참여자(A)의 경우는 부부만의 활동도 만들어

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부간 관계의 여유는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A: 이번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 유화 이렇게 색칠만 하면 그림이 되는 그런 약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냥, 그냥 칠하기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와이프랑 같이 하고 있어요. (중략) 주말에 옛날에는 주로 밖에 나갔는데 이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집에서 예 계속 그런 것들 찾아서 하게 되고.

참여자B: 그냥 뭐 그렇게 같이 하면서 사실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재택근무하면서 좀 나름 저희는 괜찮은 것 같아요.

## 5. 가족원의 일상적 면모를 새로 알게 됨

### 1) 가족들이 나의 일하는 모습을 봄

재택근무자는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나머지 가족원들이 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다른 가족원들이 지금까지 딸, 아내, 남편, 아빠, 엄마라는 가족역할로만 인식하던 연구참여자에 대해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음이 보고되었다. 가사를 도와주시는 친정어머니가 딸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낀다(E)거나 엄마가 일하면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청소년기의 자녀가 함께 속상해하거나(G), 아빠가 어떤 일을 하면서 자신들을 돌보고 있는지 등을 청소년인 세 아들이 옆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간(C)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참여자C: 음. 제가 일하는 게 어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제 보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빠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고요. (중략)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회의도 하는거야 설명도 이제 해주고. 그래서 아마 아이들은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어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참여자G: 어 엄마가 생각보다 바쁘구나 그리고 많은 일을 하는구나. (중략) 저희 딸이 열일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가 그 시간이 그런 게 아니구나 또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제가 속상해하거나 누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이런 것들 사실은 본의 아니게 보게 되니까.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이게 다 회사 가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 2) 배우자의 일상을 보며 새로운 모습 발견

참여자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배우자의 모습을 새롭게 관찰할 수 있었다는 말도 하였다. 연약한 줄만 알았던 아내가 또래 중에서는 씩씩하고 리더십이 있음을 새로 발견한 남편(B)도 있었고, 평소 불만이던 남편의 성격을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보다 넓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 아내(G)도 있었다. 아내가 잔소리를 덜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남편 이야기(A)도 있었다. 배우자의 일상 모습에 대한 이러한 발견은 배우자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B: 아내가 주변에 다른 이제 엄마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통화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좀 큰언니 노릇을 잘, 큰언니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도 셋이라 되게 힘들 텐데, 주변에 아기 때문에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연락이 오면 되게 그런 걸 상담을 잘 한다고 하나? 아무래도 본인이 애 셋을 키우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자기 경험을 토대로 잘 토닥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래도 아내한테 저런 면도 있었구나 하는 것도 사실 이번에 새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G: 어. 저희 남편은 사실 밖에서는 제가 제일 불만이었던 게 밖에서는 되게 유하고 모두에게 잘해주는 스타일인데 왜 집에서는 안 그럴까 이런 생각이 너무 강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게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유해진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 스타일은 아니구나 원래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상황적으로 자기도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게 그랬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저도 그렇게 보니까 저도 그 사람 볼 때 관대하게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 3) 아내의 육아고충을 이해하게 됨

영유아기자녀 셋이 있는 한 남성참여자(B)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전업주부 아내가 ‘독박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고충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내 혼자 세 자녀를 돌보며 가사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충을 경험적으로 이해하였다고 했다.

참여자B: 육아는 사실 혼자 하면은 정말 큰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독박육아라 그래가지고 주변에 진짜 도움 주는 사람 하나 없이 엄마가 그걸 하다 보면 정말 그런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느끼기 때문에 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조금 더 참여를 하고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와이프가 혼자서도 애를 셋을 잘 봐요. 되게 씩씩하게. 필요하면 애 셋을 데리고 나갔다 오기도 하고 주변에서 다른 엄마들이 보면 진짜 대단하다 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는 되게 힘들, 저라면 혼자 셋을 데리고 못 나갈 것 같거든요. 그건 되게 힘들 것 같으면서도 정말 그런 점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4) 아이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새로 알게 됨

재택근무를 하면서 부모들은 그동안 저녁에만 보아서 단편적으로만 알던 아이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더 깊이 알고 발견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는 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CDFG)에서 나왔다. 부모들은 자녀가 생각보다 더 게으르다는 것(G), 공부엔 관심 없고 게임만 하는 것으로 알았던 아들이 사실은 전략을 잘 짜고 리더십이 있다는 것(D), 삼 형제끼리 있을 때 저희 사이에 나름의 위계가 있다는 것(C) 등 자녀들의 알지 못하던 모습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자녀들과 장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 자녀의 모습을 새롭게 관찰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C: 음. 삼형제가 어. 삼 형제가 어떤 그, 삼 형제끼리 뭉쳐있을 때 이 삼 형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성품을 보이는지를 이번에 알게 됐는데. 왜냐면 저는 집에, 아빠가 집에 갔을 때는 본인들 스스로 행동에 제어가 들어가잖아요. 아빠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이들이 저랑 붙어있으니까 24시

간 제어가 안돼서 은연중에 이게 막 나오더라고요. (중략)

참여자G: 저희 아들이 이제 요새는 애들이 게임할 때도 다 네트워크 하니까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게임을 할 때도 전략, 전술 세워서 하는 게임이 요샌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쪽으로 가고 아 그게 그렇구나 집에서는 막내라서 잘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애를 꼭 인바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애가 이런 모습이 또 있구나 또 그리고 숙제 제가 잘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애는 공부 관심 없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애한테 숙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봐요. 아 그래서 이게 되게 짱이진 않구나. 재가 저런 면도 있구나.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경험하고 있는 기혼 성인남녀 7명을 통해 재택근무가 가족생활에 가지고 온 변화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재택근무가 가족생활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맥락적 특성을 가진 재택근무자들의 가족생활 변화를 탐색하여 그 공통점과 맥락적 차이점을 탐색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재택근무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시간적 여유와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만족감이 컸고, 가족원의 일상적 면모를 새로 알게 되므로 인한 가족원의 상호이해 토대가 커지는 공통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나 부부가 한 공간에 있으면서 다툼이 늘었다는 보고는 남성에게서, 가사와 자녀돌봄이 늘어나 재택근무가 힘든 점이 있다는 보고는 초등저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남녀 재택근무자에게서 주로 나타나 재택근무의 맥락에 따라 가족생활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분석된 주제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재택근무를 통해 융통성 있는 시간 사용과 시간 여유를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출근시간을 지키기 위한 시간 압박이 없어지고 통근시간의 절약으로 시간적 여유도 생겨 일과 가족을 병행해나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재택근무자들의 높은 만족도는 재택근무 경험자의 91.3%가 ‘만족하다’고 보고한 고용노동부(2020)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같은 조사(고용노

동부, 2020)에서 재택근무자들의 만족이유가 ‘출퇴근 스트레스 해소(86.0%)’ ‘여가시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36.5%), ‘일-가정 양립에 기여’ (27.8%)의 순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도 일맥상통한다. 사적인 장소인 가정에서 공적인 장소인 일의 영역으로의 공간이동은 시간적인 면, 에너지사용의 면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전환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이런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족생활에 투자되면서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일과 삶(가족) 간의 균형’(안주엽, 2017)이라는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일과 가족 간의 뚜렷한 경계선이 없어지는 재택근무 상황은 두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였는데 첫째는 특히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돌봄이 일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역할갈등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는 일의 집중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 명확한 퇴근시간이 없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보고되는 것이다. 이는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이유가 ‘업무 집중도 향상’(27.8%)이며, ‘근로시간/휴게시간의 경계모호가 있음’이 재택근무의 어려움이라는 의견이 30.8%에 이르는 고용노동부(2020)의 조사결과와도 일관되어 재택근무가 가족의 방해로 인해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미 온라인으로 촘촘히 네트워킹된 일의 세계가 장소와 관계없이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차원의 환경으로 기능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둘째, 참여자들은 재택근무로 인해 가사노동 및 자녀돌봄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 상황에서 유발되는 가사와 돌봄노동의 증가는 재택근무자의 역할과중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유아 및 온라인 학습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초등저학년의 부모인 재택근무자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는 자녀들의 온라인 학교학습, 돌봄시설의 제한적 운영, 외출의 제한 등과 맞물리면서 삼시 세끼 식사 준비, 자녀학습조력, 여가활동 등 모든 것을 주로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과 결합하여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이 크게 증가한 상황(장은하, 김희, 2020; 진미정 외, 2020)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사와 돌봄노동 증가의 문제는 더 확대되어 나타났을 수 있다. 이러한 가사와 돌봄노동 증가에 대한 경험은 참여자들의 성별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나타냈다. 남성참여자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부라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아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내가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특히 자녀의 식사를 챙기는 일

로 번거로움이 커진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영유아가 있는 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좋지만 동시에 힘들기도 하여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남편이 일찍 퇴근하여 자녀양육에 도움 주기를 바라고 있거나,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우선시하다 보면 일을 밤늦게 다시 꺼내서 해야 하는 식의 상황이 보고되었다. 이로 인해 한 여성참여자는 ‘솔직히 지금 상황이 쉽지 않아 빨리 출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 만족도는 영유아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고용노동부, 2020; 사용진·박소영, 2017).

본 연구에서 가사와 돌봄노동의 추가가 남녀 참여자 모두에게서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재택근무자의 객관적인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시간을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재택근무자들의 가사와 돌봄노동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볼 수 있다(Lyttelton et al., 2020; Noonan & Glass, 2012). 남성재택근무자들의 경우 재택을 통해 가사나 자녀돌봄 시간이 늘어나는 변화를 보이거나(Carlson et al., 2020; Holmes et al., 2020; Lyttelton et al., 2020) 그것은 이전보다 조금 더 하게 된다는 의미이지 여성들보다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으로 인한 이러한 가사 및 돌봄노동의 증가는 남성재택근무자들 스스로에게는 상당한 변화로 지각될 수 있어 재택근무에 대한 주관적인 불편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재택근무자들의 가사 및 돌봄노동의 경우는 주관적인 불편감이 아니라 절대시간의 문제로 대두된다. 젠더화된 가족역할의 관습과 ‘모성신화’가 가족문화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 이것이 재택근무를 하는 남녀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 여성재택근무자의 역할과부하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만일 재택근무자의 가사 및 돌봄노동에서의 절대 시간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것은 장기적으로 여성 개인의 삶의 만족도, 직업경력 관리, 가족체계의 건강성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홍승아, 2012).

셋째, 참여자들은 가사와 돌봄노동의 증가에 대하여 적응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자들의 가사와 돌봄노동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 부부간에 긴장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가족의 가사의 협력적 수행 문화가 그것이 가족갈등이나 부부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족생활주기에 관계없이 대체로 남편들이 자녀돌봄이나 가사분담에 협조적이었고 온라인 학교학습을 하느라 집에 머무르는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가사분담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가족 안에 재택근무 이전과는 다른 가사협력의 모습이 구현되는 모습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재택근무자의 경우에도 가족원들이 일하는 아내/엄마로서의 재택근무자의 존재에 맞춰 적응해나간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는 김성희(2021)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다. 또한, 남편의 가사협력여부가 가족의 함께하는 시간과 상호작용하여 가족관계 만족도에 조절 효과를 미친다는 김지현과 최영준(202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재택근무자의 부부갈등의 핵심에 가사와 돌봄노동의 성별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경과 이현주(2021)의 연구결과와 상이하다. 이유경과 이현주(2021)의 연구는 재택근무자의 가족생활전반에 대한 고찰이라기보다는 아내의 관점에서 보는 부부갈등의 발생맥락과 해결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초점을 달리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남편과 자녀의 가사에 대한 협력이 특히 '일과 가족역할 간의 경계모호성'에 있어서 취약한 여성 재택근무자 가족의 가족갈등을 낮추고 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참여자들은 자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한 정서적 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부부취업 가족의 경우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재택근무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모역할과 부모-자녀관계 두 가지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입장에서는 출근시간에 자녀를 준비시켜 돌봄시설로 보내는 등의 시간압박이 없이 아이들의 생체리듬에 맞추어 보다 자연스러운 일과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입장에서는 집에 부모가 있다는 안도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어린자녀들과의 잦은 상호작용과 공유시간의 증가는 일과 육아의 병행으로 긴장 속에서 살던 부모들에게 부모로서 자신의 정체감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재택근무는 남녀 재택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를 줄이지는 못했으나 자녀돌봄에 투자하는 시간의 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Carlson et al., 2020; Holmes et al., 2020; Lyttelton et al., 2020).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시기에 아빠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아내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아내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내의 육아현장을 보게 된 한 남성 연구참여자의 경우, 아내의 고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자신도 '짹짹'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일을 한다고 보고하는데, 남편의 재

택근무로 인한 이러한 변화가 ‘독박육아’를 하던 아내에게는 정서적·실질적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재택근무는 남녀 재택근무자 모두의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만족감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만족은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며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극대화되었을 수 있다. 이는 전업주부에 비해 일하는 엄마로서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한 엄마 재택근무자들의 경우뿐 아니라 아빠들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친구 같은 아빠’라는 개념의 프렌디(Friend와 Daddy의 혼합어)가 선호되는 오늘날의 상황(최연실 외, 2015)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자녀와의 친밀감과 대화, 공유활동에 부여하는 가치가 커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성장해나가는 자녀들과 함께 산책하고 밥을 먹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부모인 재택근무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긍정 일변도의 경험은 본 연구가 재택근무 시작 후 몇 주가 지나지 않은 ‘허니문 시기’에 자료수집이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참여자 중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한 여성재택근무자의 경우 자녀의 낮시간의 게으른 모습을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 이런 청소년자녀의 온라인 학습상황에서의 생활지도 문제(조은숙·김다애, 2021)는 재택근무가 장기화될 경우 부모자녀 간 갈등요소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재택근무는 부부관계에서는 다툼과 대화가 동시에 늘어나는 양면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말하는 부부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함께 있어서 친밀감이 증진된다는 측면보다는 역할 수행상의 편리함 쪽에 더 무게가 실렸다. 이런 반응은 특히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재택근무자에게서 나타났는데, 부부가 함께 있으니 아이 돌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빠에게 아이 맡기고 아내가 장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사소한 가사 처리 때문에 부부가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는 일도 줄어들어 일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기존의 압박감과 긴장감이 줄어들어 좋다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많아지는 것 또한 보고되었는데 이런 보고는 남성 재택근무자들에게서 나왔다. 이 말다툼은 평소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해결되지 않고 쌓여있던 일상적인 갈등요소에 대한 것이었는데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말다툼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남편의 재택근무에 대해 아내들이 자신의 공간이 침범당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유경·이현주, 2021)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다툼을 언급한 참가

자들은 동시에 부부간의 대화가 늘어난 것 또한 보고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이들이 보고하는 갈등과 대화는 일과 가족으로 분리되었던 삶이 하나로 합쳐지는 전환기에 그간의 묵은 갈등들이 불거져 나오고 이것이 대화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닌가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대화와 갈등의 동반상승은 배우자 중 한쪽만 재택근무를 하여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은 부부취업가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었다. 재택근무로 부부가 동일 공간에서 생활할 경우의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섯째, 재택근무로 인해 가족원의 일상적 면모를 새로 알게 되는 경험이 나타나고 있었고 이는 가족원의 역할분담 적절성이나 관계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원들은 배우자/부모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24시간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족원의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전업주부인 아내의 육아고충과 역량을 새삼 알게 되었으며 낮 시간 동안 자녀의 생활모습이나 자녀의 친구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것이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학교와 가족의 공간분리가 일어난 18세기 후반 이후 사람들은 가족을 '삭막한 세상에서의 피난처'(Larsh, 1986)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지친 가족원들의 얼굴을 저녁시간에 잠시 보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상호작용의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각자 지친 삶을 살고 돌아온 가족원들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구성체가 '피난처'로 기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코로나상황에서 온라인 학교학습과 동시에 진행된 재택근무가 일/학교와 가족생활의 공간을 다시 한곳으로 모음으로써 그러한 시공간의 공유가 가족관계의 발달에 전혀 다른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재택근무로 인한 가족원 간의 이러한 생활의 공유가 긍정적인 효과로만 보고되고 있지만, 갈등요인이 많은 가족의 경우는 이러한 생활의 공유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맥락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재택근무가 가족관계에서도 양극화를 가속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재택근무자들의 가족생활경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재택근무는 '출근'이라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취업자들의 생활에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내며 일과 가족생활의 병행을 보다 순조롭게 만들



어주는 효과가 확인되나 일과 가족 간의 경계모호성으로 인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재택근무로 인한 시간적 여유와 긴장감 감소는 재택근무에 대한 남녀 모두의 만족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시간사용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근무시간 이후에도 일에 몰입하거나, 가족역할이 일에 침범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엿보이며, 가사와 돌봄역할의 남녀 간 협력체계가 우선되지 않을 경우 젠더화된 가족역할의 배경 하에서 여성의 역할과부하가 일어날 가능성(장은하·김희, 2020; 홍승아, 2012)이 높다. 따라서 직업역할과 가족역할 간의 경계설정과 가사 및 돌봄역할의 공평한 분담에 대한 인식개선이 건강한 재택근무의 확산에서 중요한 선행요소로 대두된다(김영미, 2020).

둘째, 재택근무는 일하는 부모들에게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으며, 특히 어린자녀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경우 돌봄문제로 인해 재택근무에서 피로를 느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하는 부모들은 통상 일하는 시간 동안 자녀들과 분리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불가피하게 단절되는 부분이 있다. 재택근무를 하는 참여자들은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아이들의 모습을 재발견하고 부모로서 자신의 모습도 재발견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부모의 재택근무는 어린 자녀에 대한 육아부담도 감소시켰는데, 재택근무자가 근무 틈틈이 아이를 볼 수 있는 것이 육아를 하는 전업주부 아내나 자녀를 돌봄 서비스에 맡기는 부부취업 가족의 경우 모두에서 여러모로 육아와 일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자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이 직업적 일과 갈등을 일으킬 때 자녀돌봄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추후에 밀린 일을 하는 방식의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어린자녀를 둔 재택근무자들이 자녀돌봄 역할에 역할우선성(role salience)(Noor, 2004)을 부여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재택근무자들에게는 부모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업무효율성을 낮추고 피로감을 더하게 하여 ‘차라리 출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다만, 돌봄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시 재택근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때(사용진·박소영, 2017), 돌봄프로그램의 가용성 및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재택근무의 정착이 함께 나가야 할 과업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재택근무는 일로 인해 분리되었던 가족을 한 공간으로 모으게 되어 가족원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로 인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특히 그동안 분리되었던 일과 가족이 공간적으로 통합되는 전환기에 가족원 간에 잦은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 갈등을 건강한 방법으로 잘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재택근무체제로의 전환이 가족원 모두에게 안정적인 규칙과 상호작용패턴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유경·이현주, 2021)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 하루 종일 한 공간에서 부대끼게 되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거나 그 반대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관계로 악화되는 가족관계의 양극화 가능성(Lee et al., 2020)도 제기된다. 재택근무로 인한 변화가 가족기능의 취약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기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면접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 가족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최대화된 환경에서 도출된 것이다. 또한, 재택근무 시작 3주~12주까지의 경험을 탐색한 것으로서 이 연구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치 않은 보통의 시기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재택근무가 나타내는 효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성별, 가족생활주기별, 가족형태별 제한이 없이 다양한 재택근무자의 가족경험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연구결과가 수렴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들을 보여주는 데 의의를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연구참여자의 가족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추후 연구를 통하여 성별, 가족생활주기별, 가족형태별 등 재택근무자의 가족생활에 대한 탐구가 심화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척도상으로 나타난 본 연구 참여자들의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가 특별히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남편의 가사조력에 대한 태도, 종사하는 직업의 직종이나 직급 등이 이들의 재택근무 경험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어떠한 선택이나 배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이 모집된 것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이나 직급이 여전히 제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직종이나 직급 재택근무자의 경험일 수도 있다는 연구참여자 특성이 가지는 한계 안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재택근무자 본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원들의 경험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자 당사자를 제외한 가족구성원, 예를 들면 배우자나 자녀들이 느끼는 경험과 생각·관계의 역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는 포착되지 못하였다. 사례연구와 같은 다른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가족원 각자의 경험, 가족의 하위체계에서의 변화나 가족전체의 역동변화 등에 대한 각 가족원의 관점을 포괄할 수 있는 추후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초기 시점에 재택근무 당사자의 가족생활 변화경험을 포착하여 재택근무가 가족생활전반에 가져오는 변화를 보여주는 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를 둔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 별로 연구된 바 없는 남성 재택근무자의 가족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자료를 보충하였다는 데 의의를 둔다.

## ■ 참고문헌

- 강민정 · 김종숙 · 김난주 · 이선행 · 권소영. 2019. 『2018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연구보고서.
- 고용노동부. 2020.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http://xn--6i0bp5cn9n4okm3cjrbe57afsi.kr/support/archives/data/view.php?no=5>
- 김경미 · 류승아 · 최인철. 2012. “가족 간 식사, 통화 및 여가활동과 중년기의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2): 279-300.
- 김송이. 2020.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삶의 질, 긍정 심리자본에 관한 융합적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6): 423-431.
- 김성희. 2021. “온택트시대 재택근무자의 일-생활 균형”. 『2021 가정학분야 춘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141-154.
- 김영미. 2020. “코로나-19 속 한국의 일·가족 양립 현실, 위기로 끝낼 것인가, 변화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월간 공공정책』174: 56-59.
- 김영란. 2020. “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 정책 의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36.
- 김유식 · 정병철. 2020. “코로나19 상황이 전업 주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6): 567-578.
- 김지현 · 최영준. 2021. “코로나19 시기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남성 가사분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70: 101-132.
- 사용진 · 박소영. 2017. “가족부양의무와 재택근무 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2): 103-125.
- 서울특별시. 2021. 『2021 도시정책지표조사보고서』.  
<http://data.seoul.go.kr/dataList/OA-15564/F/1/datasetView.do>
- 손서희 · 성미애 · 유재연 · 이재림 · 장영은 진미정. 202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악화가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미친 단기중단적 영향과 조절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1): 3-25.
- 안주엽. 2017.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노동리뷰』 3: 52-61.
- 이동선. 2021. “코로나19 1년 -여성의 일·돌봄 변화와 전망: 코로나19 이후 일·돌봄 변화와 돌봄정책 개선 과제”. 『KWDI Brief』 64: 1-12.
- 이애련. 2011. “저출산 시대에 재택근무 및 재택근무자의 사례 연구 : 서울시 동대문

- 구청의 재택근무자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8(1): 227-251.
- 이유경 · 이현주. 2021. “코로나-19시대 재택근무로 전환된 부부의 갈등경험과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아내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3(1): 70-116.
- 장은하 · 김희. 2020. 코로나19와 성 불평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패널 브리프』 54: 1-9.
- 조은숙 · 김다애. 2021. “COVID-9 상황에서 자녀의 온라인 학교학습으로 인한 가족 생활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2): 3-24.
- 진미정 · 성미애 · 손서희 · 유재언 · 이재림 · 장영은.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 58(3): 447-461.
- 최연실 · 조은숙 · 배희분. 2015. 『청소년기자녀가 있는 아버지 양육가이드북 -함께 행복한 아빠되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천혜정. 2004. “가족 여가 참여 동기 및 가족여가 활동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2): 1-13.
- 최청락 · 김혜정 · 문정희 · 이자형 · 박금식 · 이진숙. 2020. “코로나-19 경험을 통한 여성가족 분야 대응전략”.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0(2): 1-65.
- 통계청. 2020.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38578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38578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홍승아. 2012. “일 · 가정양립의 관점에서 본 유연근무제: 전략적 선택인가, 젠더 함정인가?”. 『가족과 문화』 24(4): 135-165.
- Braun, V., and V. Clarke.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Carlson, D. L., R. Petts and J.R. Pepin. 2020. “Changes in parents’ domestic labor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orking paper)  
<https://doi.org/10.31235/osf.io/jy8fn>
- Dunstan, D. A. and Tooth, S. M. 2012. “Treatment via videoconferencing: A pilot study of delivery by clinical psychology trainees,” *Australian Journal of Rural Health* 20(2): 88-94.
- Funk, J. L., and R. D. Rogge. 2007. “Testing the ruler with item response theory: Increasing precision of measurement for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the Couples Satisfaction Index.”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4): 572-583.

- Holmes, C. and Foster, V. 2012. "A preliminary comparison study of online and face-to-face counseling: Client perceptions of three factors," *Journal of Technology in Human Services* 30(1): 14-31.
- Holmes, E. K., R. J. Petts, C. R. Thomas, N. L. Robbins, and T. Henry. 2020. "Do workplace characteristics moderate the effects of attitudes on father warmth and engage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4(7): 867-878.
- Lasch, C. 1986. "Family as a haven in a heartless world".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 (eds). *Family in transition: rethinking marriage, sexuality, child rearing, and family organization*. Boston: Little Brown: 533-543.
- Lee, J., M. Chin, and M. Sung. 2020. "How has COVID-19 changed family life and well-being in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51(3-4): 301-313.
- Lincoln, Y. S. and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Lyttelton, T., E. Zang, and K. Musick. 2020. "Gender differences in telecommuting and implications for inequality at home and work."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645561](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645561)
- Mangiavacchi, L., L. Piccoli, and L. Pieroni. 2021. "Fathers matter: Intrahousehold responsibilities and children's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lockdown in Italy". *Economics & Human Biology* 42: 1-19.
- Noonan, M. C., and J. L. Glass. 2012. "The hard truth about telecommuting". *Monthly Labour Review* 135: 38-45.
- Noor, N. M. 2004. "Work-family conflict, work-and family-role salience, and women's well-be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4(4): 389-406.
- Pinsof, W. M., R. E. Zinbarg, K. Shimokawa, T. A. Latta, J. Z. Goldsmith, L. M. Knobloch-Fedders, A. L. Chambers, and J. L. Lebow. 2015. "Confirming, validating, and norming the factor structure of Systemic Therapy Inventory of Change initial and intersession". *Family process* 54(3): 464-484.
- Save the Children. 2020.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글로벌 서베이 한국 결과 보고서)』. <https://m.sc.or.kr/mobile/news/reportView.do?NO=70746>
- Shafer, K., C. Scheibling, and M.A. Milkie. 2020. "The division of domestic labor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Canada: Stagnation versus

shifts in fathers' contributions". *Canadian Review of Sociology* 57(4): 523-549.

Voydanoff, P. 2005. "Work demands and work-to-family and family-to-work conflict: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26(6): 707-726.

(2021. 07. 30. 접수, 2021. 08. 03. 심사, 2021. 09. 17. 채택)

## Abstract

###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Family Life for Telecommuters under COVID-19 Situation

*Eunsuk Cho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Daae Kim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family life and relationship of telecommuters under the COVID-19 situation. Seven married telecommuters (4 males & 3 females) were recruited through snowballing method, and data were obtain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using video conference platform(Zoom). Interview transcripts were analyzed using Braun & Clarke(2006)'s thematic analysis method. The results showed 5 themes: "Flexible time use and time spare," "Increased domestic labor and child care caused accommodation," "Emotionally satisfied with being with children," "Increased quarrel as well as dialogue with partners," and "Recognized family members' new aspects". Participants expressed overall satisfaction with telecommuting, experiencing a relaxed life without commuting pressure, the compatibility of work-childcare, increased time being with children, and the fact that family members get to know each other more while being together. However, the participants, who were forced to devote partial time to domestic labor and child care, complained of the uncomfortableness of telecommuting, regardless of gender, and minor conflicts between couples increased than before. Based on these results, authors discussed the need to improve family culture such as fair distribution of domestic and care labor and healthy communication in order to import telecommuting as a good resolution to classic "Work-family conflict."

Key words: COVID-19, telecommuter, family life, marital relationship,  
parent-child relationship, thematic analysis